

# 나를 낮춰야 道를 구할 수 있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 원숭이 왕, 어디를 헤매이나(2)

우리의 세계인 남섬부주에 도착한 원숭이 왕은 괴물 흉내를 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는 기절한 사람 옷을 빼앗아 입고, 사람 사는 곳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괴물로 변장했으면 기절한 사람까지 있을까요.

좀 지난 유머지만 마누라를 무시워하는 공처가의 등급에 마누라만 보면 경기가 드는 '경처가', 기절하는 '기처가'가 있다고 하였는데 혹시 기절한 사람은 원숭이만 보면 기절하는 '기원가'가 아니었을까 모르겠네요. 기처가의 유래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 않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여러 공처가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마누라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가 화장실 다녀오면서 농담으로 "큰일 났어! 우리가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마누라들이 알고 이곳으로 쳐들어 오고 있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마자 우지끈 똑딱! 모두 다 창문을 부수고, 어떤 심한 사람은 벽을 그대로 뚫고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이 의연하게 벽에 기대어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와! 우리 사이에 이런 용감한 사람이 있었단가?" 하고 가까이 가 보니, 그 남자는 기절해 있었습니다.

어찌됐던 '나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 하면서 이리 차별, 저리 구별하는 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누에가 제 입에서 실을 뽑아 고치를 짓듯이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앉아서 온갖 것을 그 속에 끌어 넣어보려고 발버둥치는 세상. 자기와는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세계 속으로 억지로 끌어 넣으려 온갖 짓을 다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모습 아니던가요?

우리 원숭이 왕이 본 인간 세상의 모습도 역시 그랬습니다. 원숭이 왕이 막 남섬부주에 도착해서 인간 사회를 익혀갈 무렵 매우 충격을 받았던 사실이 있다 하더군요.

"짜담 후시엔 이라는 조그만 마을의 폭력배가 온 마을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설치하는 것을 보던 '조져 부셔'라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조폭 두목이 무자비한 방식으로 그를 제거하고 그 마을까지 자신의 조직망에 흡수하는 일이 마침 그 때 벌어졌다는 가요?"

"폭력 제거를 위한 특별 폭력주간"이라는 플랜 카드까지 걸고 거창하게 일을 벌였는데, 그 동안은 거리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애고 어른이고 가릴 것 없이 때렸습니다. 우리 원숭이 왕, 웃지 못할 피가 튀는 싸움을 목격하고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읍조렸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통해 폭력을 해결한다 하는구나! 한 생명이라도

죄 없이 죽는 모습을 차마 못 보는 마음이 근본이 되어야 할 텐데, 생명을 가차 없이 여기는 풍조만이 세상을 휩쓸었구나. 조그만 것 훔친 이는 도둑으로 몰려 죄를 받고, 무수한 생명을 죽인 자는 영웅으로 세상에 군림하네. 누가 까마귀의 암수를 가리리요, 아! 끝없는 전도몽상(顛倒夢想)의 세계여! 차라리 우리 원숭이 세상이 이보단 낫구나"

이런 남섬부주 세상의 모습에 환멸을 느낀 원숭이 왕은 "이런 곳에 내가 찾고자 하는 도(道)가 있을 리 없다!"고 결론을 내리곤 또 다시 다른 땅을 찾아 배를 띄웁니다. 최상의 것을 구하는 이의 구도심은 끝

“

남섬부주 도착, 체험나선 손오공 무자비한 세상 풍토에 큰 실망 "이곳엔 道가 없다"며 다시 떠나

다시 헤매다 이른 곳이 서우하주 나무꾼의 노랫소리 仙氣가 넘쳐 옆드려 제자가 될 것을 청하니 진짜 도사가 있는 곳을 알려주더라

”

이 없어야! 또 다시 큰 바다를 건너는 원숭이 왕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야 하겠지요? 여기서 고상한 말씀 한마디로 초를 지지 않을 수 없군요.

아! 어찌 한번의 떠남으로 원하는 땅에 이를 수 있으리. 이곳이구나 하는 순간 이곳이 아닐세. 떠나고 또 떠나고 마침내 떠남조차도 떠나는 그곳. 송곳 세울 땅도 없는 그곳에 머뭇없이 머무는 그날은 또 언제일까? 그곳을 찾아, 그날을 향해 오늘도 떠나고 또 떠나네.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그림·최주현

### 희망의 나라로

암튼 헤매이는 것은 여기서 중지하고, 원숭이 왕은 계속 갑니다. 가고 또 가고, 그래서 다시 도착한 곳, 그곳은 서우하주였네요. 이곳은 우리들 세계 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은 땅이었습니다. 며칠 헤매던 끝에 정말 산천경계 좋아 선기(仙氣)가 넘치는 산을 발견하네요. 오랜 만에 맑은 기분으로 산세를 살피는 원숭이 왕의 귀에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 바둑 구경에 도끼 자루 찍었구나

오늘은 다시 광광 나무를 찍는데 구름은 골짜기 어귀에서 천천히 흘러가네. 나무 팔아 산술 한 되에 거리낌 없는 웃음으로 마음을 기른다네. 풀 우거진 길 위로 가을 하늘 높아 달을 빛삼아 솔뿌리 베고 누웠는데 깨어나니 어느새 새벽 하늘이 밝아 오누나. <중략>

교묘한 잔재주도 없고 셈에도 어두우며 영에도 욕됨도 뛰어넘어 욕심없는 맑은 마음으로 삶을 이어간다. 어느 곳에서도 선인의 세계와 도의 경지를 마주하며 고요히 앉아 황정경(黃庭經: 도교의 경전을 읽는다.

오랜 만에 이렇게 속기를 벗어난 노래를 들은 원숭이 왕,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 달려 가서 노래의 근원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리 봐도 나무꾼, 저리 봐도 나무꾼. 그러나 도를 구하는 사람은 겉모습에 매어서는 안되는 법입니다. 아니 도를 구하는 사람 아니라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은 하면 그 말의 좋은 점을 취하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말을 들어도 사람의 신분이나 나이, 이력 등에 얽매어 배우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심하게는 말로도 논리에서 밀리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나이 등을 구실로 입을 막아 버리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나이 어린 사람과의 대화에서 논리에서 밀리면 "이런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 것이!" 라든가 "호적 등본에 인크도 안 마른 것이!" 라면서 반쯤 욕설로 몰아치는 고명한 수법을 쓰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주장은 어떻다는 식으로 물고 가는 논법을 '사람에 의 추리'라고 합니다. '우물에 독 타기' 식의 논법이라고도 합니다. 근원에 대해 나쁜 인식을 주어서 사람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방식입니다.

큰 선거 때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우물에 독 타기' 식의 논법이 얼마나 애용되는지, 그 사람 전

력이 어떻게, 장인이 부역을 했다더라, 아버지가 친 일파였다더라,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더라, 소위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논법이 오고 갑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의 보조 자료로 조심스럽게 사용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정견이나 공약 등을 비판하는 주된 근거로 쓰여서는 안됩니다. 거기에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어떤 사람을 매도하고 공격하려는 비열한 수법이 속아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쉽게 그러한 비열한 수단에 마음이 움직여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닐까요?

각설하고 일반 사람도 그런데 도를 구한다는 사람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불치하문(不恥下問) 정도가 아니죠. 문둥이, 거지에게도 절하고 듣는 겸손은 구도자의 근본 자세 아닐까요? 우리 원숭이 왕은 몇 개의 바다를 건널 정도로 구도심에 불타는 원숭이인데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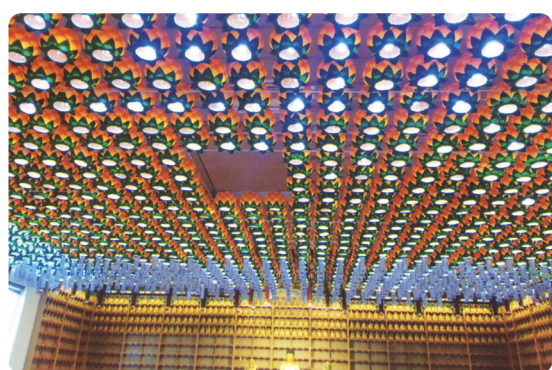
"노 신선님! 제자 인사 드립니다"고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 경과 전 회에서 이야기했듯, 그 겸손한 구도심의 결과로 원숭이 왕은 나무꾼에게 선기 넘치는 노래를 가르쳐 준 진짜 선인이 계신 곳을 알게 됩니다. 이튿날 요상한 동네입니다. '신령스런 누대, 사랑 한치 산(靈臺方寸山)' 속에 있는 '기운 달에 삼형제 별 뜬 골짜기(斜月三星洞)'

이 동네를 찾아가는 이야기는 다음 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하!

##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 연등 자동 승강장치



원주 보문사 대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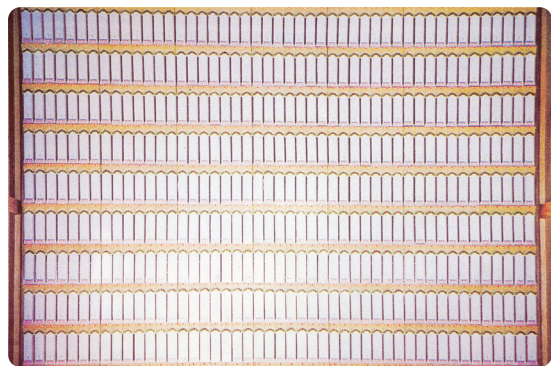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장흥 보림사 위패단

### 인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제주 월성사 인등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숲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 연등



노랑

진분홍

영가등

금등

바림등

만월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